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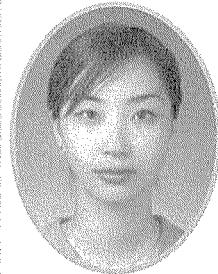
## \* 해외도서관 사정③

“

# Switzerland

## Library

”



정 미 미\*

스위스(Switzerland)의 공식국명은 Confederation Helvetica(CH)이고, 수도는 베른이며 국기는 빨간 바탕에 흰 십자가<sup>1)</sup>이다.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이며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와 연결되어 무수히 많은 역사의 굴곡을 넘어온 나라이기도 하다. 1815년 국제적 공인을 받아 중립국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많은 국제기구들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졌다.

26개의 자치 칸톤(Canton)별로 독자적인 행정부, 의회, 법원, 조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4개의 다른 언어<sup>2)</sup>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상위권의 GNP를 유지하는 선진국 스위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하나로 존재하는 나라.

우리가 알고 있던, 알프스와 만년설, 그리고 요들송과 시계를 제외하고서라도 스위스라는 나라는 충분히 우리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음이 분명하다.

### 【스위스 국립도서관】

스위스 연방헌법 69조에 의하면 'The field of culture is a cantonal matter..'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사업부분은 각 칸톤의 관할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 안에서 연방정부는 보조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스위스 국립도서관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lt;스위스 국립도서관의 모습&gt;

1895년 설립된 스위스 국립도서관 및 문학문서국(National Library and Literary Archives)은 1928년부터 중앙정보서비스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The Swiss Union Catalogue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89년 스위스 연방문화국에 통합된 후, 1992년 연방의회가 도서관에 관한 신법을 승인함으로써 완전한 재조직의 토대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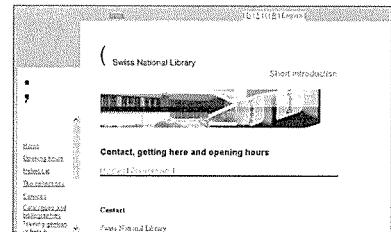
또한, 1996년 스위스 내 모든 도서관간의 협조체계구축을 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국립도서관을 재건축하여 2001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Catalogue의 발전은 1993년 최초의 전자목록인

\* 주 제네바 대표부 도서실 사서, mi2blue@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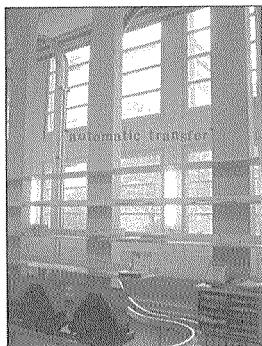
1) 십자기는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기를 상징하고 바탕에 붉은 색은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한다.

2) 독어(63.7%), 불어(20.4%), 이태리어(6.5%), 스위스 로망어(0.5%) 사용.



<스위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http://www.snl.ch/de/aktuell/index.htm>

VTLS 시스템을 개시한 이래, 1994년 Helveticat 전자 DB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고, 도서관 재건축 후 2002년에는 The Catalogue Helveticat<sup>1)</sup> 스위스 국립도서관의 온라인목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이미지를 부각시킨 이 도서관은 automatic transfer<sup>3)</sup> 대출시스템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스 도서관간의 상호교환 필요성에 의해 국립도서관 설립 100주년째인 1995년 단일정보망의 설립을 착수하였다.

스위스는 4개의 언어가 공존한다는 특성 때문에 같은 국민일지라도 대화가 어렵고 영어로 대화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물론, 2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므로 통합목록 작성시에도 각자의 언어로 색인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칸톤별로 자치권이 강해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도서관 발전에 장애 요인이었다. 하지만, 스위스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보다는 각 언어마다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단일화된 옵션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주력했다.

그 결과, 현재 스위스연방과 8개 칸톤대학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인 “SWITCH”<sup>4)</sup>에 의해 모든 도서관들이 네트워크화 되어있다(<http://www.switch.ch/libraries>).

RERO의 경우는, Library Network of Western Switzerland로써 제네바를 비롯한 불어권 지역(Fribourg, Neuchatel&Jura, Valais, Vaud)의 온라인목록이다.

또한, RERO는 독일 University Library Karlsruhe에서 제공하는 Karlsruher Virtueller Katalog(KVK)<sup>5)</sup>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 【제네바(Geneva)】

스위스 서남단에 위치한 제네바(Geneva)는 UN 유럽본부와 WTO, ILO, ICRC, WHO, ITU와 같은 200개의 크고 작은 국제기구와 170여개국의 대표부(mission)가 자리잡고 있어 40%이상이 외국인들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들을 접할 수 있는 명실공히 국제도시이다.

제네바에는 현재, 200개가 넘는 도서관<sup>6)</sup>에 약 8300만권의 도서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과 어린이들을 위한 Bibliobus(이동도서관)가 주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제네바의 경우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자치도서관(municipal library)에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등 각 종 언어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다.

모든 도서관의 Reading room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책에 관해 의뢰를 할 수 있으나, 대출시에는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도서관 이용권이 있어야하며 반드시 제네바에 거주해 있어야 한다. 만약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을 시는 20sfr(스위스 프랑)을 내야 한다.<sup>7)</sup> 아래는 대표적인 제네바의 도서관이다.

3) 자동 운송 대출·반납 시스템, 각 층에서 대출이 이루어져 레일을 따라 책을 담은 통이 1층으로 오면 이용자는 대출을 하고, 반납시에도 1층에서 반납을 하면 레일을 따라 책을 담은 통이 해당층으로 운송 됨.

4) The Swiss Education & Research Network

5)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전세계 주요 도서관의 온라인 DB를 연결함으로써, 7500만권의 도서와 간행물을 검색할 수 있다.  
<http://www.ubka.uni-karlsruhe.de/hylib/en/kvk.html>

6) Public, Scholar, Scientific, University, International, Private

7) 제네바를 떠날시 반환받을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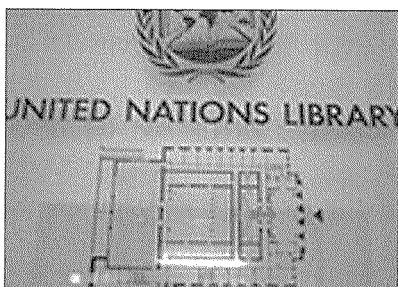
※ Bibliotheque des Nations (UN Library) : UN(United Nations) 내에 위치한 도서관으로써, UN 직원들과 각종 국제 기구, 외교사절단, 국제대학원생들 등을 위해 운영된다. 별도의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야 입장 가능하며, 국제정치와 국제법 관련 책자가 많다.

※ Bibliotheques Publiques et Universitaire(BPU) : 1559년 칼뱅에 의해 설립된 BPU는 오래된 역사와 함께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관 중 하나이다.

※ Bibliotheque de la cite : 제네바 시립도서관

※ Bibliotheque Uni-Mail : 제네바 대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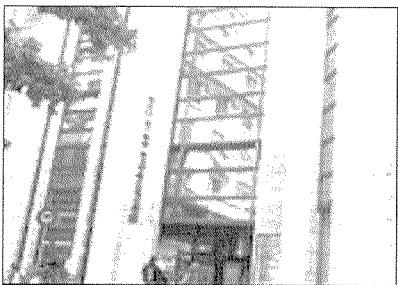
※ Archives de la Ville de Geneve : 제네바 기록물 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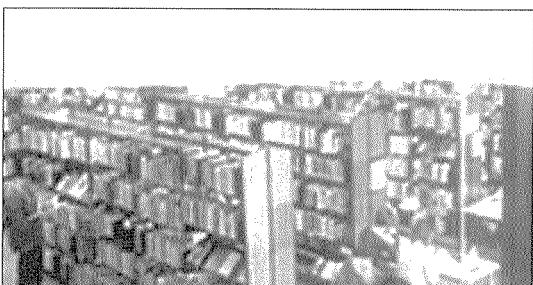
〈UN Library〉



〈Uni-Mail〉



〈제네바 시립도서관〉



〈상트갈렌 수도원 도서관〉

제네바 지역은 아니지만, 스위스 동부의 중심도시인 St.Gallen에 위치한 Stift 도서관(Stiftsbibliothek)은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자 전 세계의 수도원 도서관으로써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크다.

중세 초기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15만권 이상의 귀중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1758년에 도서관 내부 공사를 시작하여 1767년 완공되었다. 연 1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Stift 도서관의 홀은 바로크(Baroque) 양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홀 중의 하나이며 1983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문화재로 선정 되었다.

## 【스위스-미국 사서 교환 프로그램】

스위스도서관협회(BBS)와 미국도서관협회(ALA)의 국제관계 사무소(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 IRO)가 1999년 BBS의 ALA연례회의 참석을 계기로 두 나라간의 사서교류에 동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는 미국과 스위스 사서간의 문헌정보학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류하기 위한 Professional visits, 특정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1~3개월 훈련코스인 Professional Training Period와 최소 5년의 경력자 위주로 6~12 개월 동안의 유사관종 교류인 Professional Immersion이 있다.

Professional Training Period의 경우, BBS가 IRO에 의뢰를 하면, IRO에서는 Training Period를 두는 도서관의 리스트를 스위스의 사서들에게 제공하게 되고 이전에 대해 스위스의 사서들은 IRO에 문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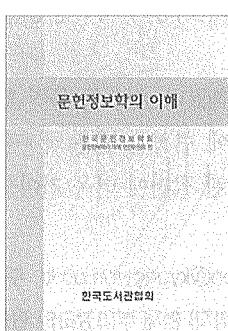
훈련을 받고 싶은 분야를 의뢰하고 미국도서관의 가능여부 확인을 거쳐 결과가 발표된다. 이때, 훈련대상자가 미국에 머무르는 전 기간동안의 월급은 보장된다. 스위스의 경우,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모든 도서관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또한, 1996년 국립도서관 재구성을 국가차원에서 착수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스위스의 도서관은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WITCH를 통해, 도서관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집중적인 정보서비스체계 구축에 대해 국가와 도서관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서로 협력했기 때문이다.

활발한 상호협력, 위에서 언급한 ALA와의 사서 교류 시스템 등을 통한 “열린자세”와 “협조체제” 구축. 이것들이 스위스 도서관의 발전요인이 아닐까 싶다. 

### 신간

## 문헌정보학의 이해

한국문헌정보학회 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편



양장본/크라운판/681쪽  
ISBN 89-7678-074-4  
정가 30,000원  
회원보급가 24,000원

※ 학과 교육용 ※  
반양장본/크라운판  
정가 18,000원  
교육용보급가 14,400원

### 목차

- 제1편 지식정보 사회
- 제2편 문헌정보학의 발달
- 제3편 문헌정보학의 체계
- 제4편 도서관·정보 센터
- 제5편 디지털도서관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w3master@korla.or.kr